

농진청, 증장기 연구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 2015년까지 농업과학기술 발전 청사진 점검



◀ 농진청은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농진청장 및 차장, 실 국장, 소속기관장을 비롯해 농업관련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본관 3회의실에서 농업과학기술 증장기 연구개발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증장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농업여건의 급변화에 따른 농업기술고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앞으로 10년간의 농업과학기술 증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진청은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농진청장 및 차장, 실 국장, 소속기관장을 비롯해 농업관련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본관 3회의실에서 농업과학기술 증장기 연구개발 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증장기 연구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진청 김승유 연구관의 농업과학기술 증장기 계획의 총론을 시작으로 작물분야, 원예분야, 축산분야, 생명공학분야, 농업과학분야, 농업환경분야, 농업생물분야, 농산물 안전성분야, 농촌자원 개발분야, 농업경영정보분야로 나뉘어 앞으로 10년

간의 농업과학기술의 미래를 살펴보았다.

이날 하정규 서울대 교수는 축산분야 지정토론 발표에서 지역별 사양관리 표준 마련과 통합관리 시스템 적용의 필요성과 함께 축산분야를 차세대 바이오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양표준 마련, 가축개량 등의 연구는 국가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로 연구가 지속발전 되어야 함도 강조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축산분야 증장기계획(안)과 관련하여 돼지 부문은 돼지고기의 근내지방도 향상 및 한국형 종돈개량 시스템 구축과 암태지 선발지수 제정 등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산림지역 낙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가축분뇨 퇴비화 연구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양돈**